



장성군, '찾아가는 영농 사랑방' 운영

읍면 집합·마을순회 교육 병행

농업인에 영농 길잡이 역할 톡톡



장성군은 11일간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을 집중 추진한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농업인 3천여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마을 순회 교육을 병행한 '2017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농한기 철을 맞춰 진행되는 영농교육은 11개 읍면이 문화예술회관과 면사무소에서 한 차례씩 집합교육을 진행하고, 49개 주요 마을에서 현장 순회 교육이 동시에 추진된다.

최근까지 이어졌던 기울으로 작물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작물 재배 관리법을 중점적으로 일리고, 벼와 고추 등 여름철 작물 생육관리법과 밭농사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농기계를 함께 소개한다. 또한 지역별 주요 작목과 관련한 기술을 중심으로 다뤄 농업인 궁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9개 마을 모정과 회관 등

게 필요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군 관계자는 "영농교육에는 고령의 농업인들도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교재 구성은 기준의 서술형에서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이미지 구성으로 많은 변화를 줬다"고 말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급변하는 기후민들 농업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를 혁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농업기술과 정보를 발빠르게 습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며 "농업인에게 필요한 영농 교육은 꾸준히 지원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영농교육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농업인 월급제 운영 등 장성군 주요 농업정책과 폭염·태풍에 대비한 농작물 관리 요령,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 등도 함께 전달한다.

장성=반정모 기자

보성군, '행복한 한글교실' 큰 호응

어르신들 배움 위해 퇴직 교장선생님 등 강사로 나서



배움을 함께 나누며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교육은 미력면 개개, 물어면 배울, 복내면 용전, 내판 조성면 산정마을회관 등 5개 마을 8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연말까지 매주 2회 2시간씩, 총 60회에 걸쳐 실시한다.

조성면 수강생 김모 어르신은 "한글 수업은 글씨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까지 행복해져 항상 웃음꽃이 피고 있다"며 "손주에게 편지도 써보고 시도 짓고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고 한글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문화, 교육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신안군, 재난·재해 대비

읍면사무소 발전기 설치

신안군은 도서지역 특성상 태풍 피해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어려워 읍·면사무소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전원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종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비상발전기는 상용전원의 공급중단 시에 대체 전력으로 공급하는 비상전원으로 현재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비상발전기는 ATS(자동절환스위치)를 포함하여 설치하였으며, 정전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비상발전기가 동작하여 전원을 공급한다.

신안군은 읍·면사무소의 전기·통신시설 미비에 대비하여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태풍, 정전 등의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어려운 원거리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여 현재 275백만원 투입 11개 읍면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개면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찾은 정전과 태풍피해로 인한 업무 마비시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 행정서비스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말했다.

신안=박응식 기자

영광군,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도내 최고

벼 재배면적 대비 91%인 8,838㏊ 가입

영광군은 올해 벼 재배면적 대비 재해보험 가입률이 전남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전남도에서 최초로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가입기한이 만료된 지난 6월 30일 NH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 접계결과 벼 재배면적 면적 9,656㏊ 중 91.5%인 8,838㏊를 기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민선6기 군수 공약사항으로써 2014년도에 80%였던 보조율을 금년에는 90%까지 확대하여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기입면적 6,787㏊에 대비 130% 증가했고, 기입면적도 2,051㏊가 늘었다. 영광군의 뒤를 이어 고흥군이 79%, 함평군 67%, 신안군 6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해 발생한 수발아 및 병해충 피해 등으로 1,076㏊에서 21억원의 보험금 지급 혜택을 받은 바 있다.

군은 앞으로도 벼 재배농가에 대해 100%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도록 권장하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군,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경각심 고취·이용객 만족도 향상 등 도모



함평군은 4일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8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박사업의 체계적

인 관리와 화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서비스와 위생환경을 개선해 이용객의 민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농어촌민박법 개정에 따라 민박사업자는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는 민박 등의 화재사례, 사업자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시설물 화재예방 조치와 관리방법, 화재 시 대피

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또 위생관리, 서비스 교육 등 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사례 위주로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군 농어촌민박 서비스 품질이 개선돼 관광객들의 민족도가 향상되고 농가소득이 향상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구례군,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실시

구례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15개 초·중·고등학교, 1,59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과 흡연에 대한 잘못된 상식 등을 알려주었다.

군 관계자는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학생 흡연으로 인한 성장발육 저연과 각종 질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등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므로 예방교육을 통해 흡연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군에서는 흡연율 감소와 금연 실

천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담배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에 각급 학교가 적극 참여하도록 권고하였으며, 금연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금연상담과 행동요법 보조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또한, 흡연하는 주민들의 금연을 돋기 위해 보건의료원에서는 금연 상담 일산화탄소 및 니코틴 측정, 금연보조제 및 금연치료의약품 지원 등 금연상담실과 금연치료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26일, 27일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742명을 대상으로 "담배 연기는 싫어요"라는 주제로 흡연예방인형극을 섬진아트홀에서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여름에는 평창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02.09~02.25(17일간)
· 패럴림픽 2018.03.09~03.18(10일간)

☆☆
PyeongChang 2018
올림픽
Paralympic
Games

☆☆
PyeongChang 2018
동계패럴림픽
Games